

온라인 수출기업 2022년까지 1만5천개 키운다

중기부 '중소 수출·해외진출지원 대책' 발표
지방 유망기업 양성...미·인도 혁신거점 조성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온라인 수출기업 1만5천개와 지방 수출 유망 핵심기업 5천개 육성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열린 경제협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온라인 수출 기반 조성 ▲스타트업의 해외 스케일업(Scale-Up·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 추진 ▲한류 등을 활용한 신흥시장 진

출 확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방식 개편 등을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지원을 구체화했다.

중기부는 먼저 온라인 수출 기반 조성을 통해 온라인 수출기업 1만5천개를 양성한다.

이를 위해 국내는 소량 수출물량 집적을 위한 창고 비용을 지원하며, 해외서도 수요가 높은 10개 지역 현지에 물류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보관·통관·배송을 공함 등 한 국

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도 만들고, 관세청과 소핑몰·물류 업체의 시스템을 연계해 판매와 배송내역을 수출신고 항목으로 자동 신고하는 '수출전용 통관물류 신고 시스템'도 구축한다.

상품 정보를 담은 기존 바코드 체계를 개편해 제품 생산부터 배송까지 정보를 통합하는 '표준정보시스템 체계'도 함께 마련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내수기업이 해외 온라인 몰에서 직접 상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실전 교육을 제공하고,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대규모 온라인 전시관을 구축하기로 했다.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해외 혁신거점 조성, 국제기구 설립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인도 구르가온과 미국 시애틀에 스타트업 진출 거점을 신설하고, 해외 사무공간 중심의 수출 인큐베이터 22곳을 개방형 공간으로 전환한다.

한류 등을 활용한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태국 등 한류 확산 국가에서 케이콘 등 문화행사를 확대하고, 문체부 K-콘텐츠 엑스포와 연계해 관공전과 상담회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수출유관기관이 자율적으로 연구개발(R&D)·자금·보장 등 정책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지역의 수출 유망 핵심기업을 5천개 육성하는 등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또 연간 수출실적에 따라 초보(10만 달러 미만)·유망(10만~100만달러)·성장(100만~500만 달러)·강소(500만~1천만달러)·선도(1천만달러 이상)기업으로 구분해 단계에 따라 사업예산을 배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서 무역금융에 2천640억원을 추가 출원해 총 2조9천억원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시스템과 지역의 수출 유망기업 육성 제도를 잘 정착시키고, 해외 혁신거점 설치 등을 통해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에 쉽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후성기자

투데이 경제



산단공 지역본부 '안전점검의 날' 행사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 7일 광주첨단국가산단에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과 공동으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가졌다.

광주전남본부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은 이번 행사에서 첨단산단에 입주하고 있는 지오세(대표 박인철) 공장을 방문해 제조현장의 생산설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근로자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 제고 결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본부는 산업단지 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기업(기업인·근로자)과 함께하는 'B T+S ((Business Together +Safety) 안전릴레이'를 시작했다. /임후성기자

에어서울, 일본 전 노선 '영원특가'

에어서울은 가정의 달을 맞아 8일 일본 전 노선에서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만 내고 왕복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Forever(영원) 특가'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원 특가'는 항공운임이 0원으로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만 결제하면 되며, 편도 총액이 3만8천200원, 왕복 총액이 5만8천500원부터다.

노선별 편도 총액은 ▲오사카, 후쿠오카, 다카마쓰, 요나고, 시즈오카, 도야마, 히로시마 3만8천200원 ▲동경, 삿포로, 오키나와 3만9천400원부터다.

탑승기간은 7월20일까지며, 에어서울 홈페이지 회원에 한해 오는 14일까지 선착순으로 '영원 특가'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임후성기자



손해보험협회, 교통안전물품 전달

손해보험협회 서부(호남·충청) 지역본부는 경찰청의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추진 사업과 전남지역 교통약자 배려 캠페인 추진과 관련, 고령자 등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적극 추진 중인 순천경찰서에 지난 7일 교통안전물품(다기능 신호봉 100개·차량용 소화기 100개) 전달식을 가졌다.

김양식 본부장은 "향후에도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고 보행약자인 고령자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경찰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박은성기자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이달 말까지 확정신고하세요

올해 대상 2만9천여명 전년비 19.4% ↓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작년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차례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에 대한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와 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세를 올린 납세자다.

올해 신고대상 인원은 2만9천여명(파생상품 5천명 포함)으로 전년 신고대상(3만6천명)에 비해 19.4% 줄었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에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이 발송되면 개인정보 수신에 동의한 납세자에 한해 신고 대상임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에는 안내문에 합산대상 소득금액과 기납부세액 등을 도

움자료로 제공하는 등 신고도움 서비스를 강화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 중과 대상인지 확인하는 자가 검증 프로그램과 1가구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을 간편하게 계산하는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한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부동산 등기 자료를 활용한 '미리제움' 서비스와 취득세 등 필요경비 자료를 쉽게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관련 내용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농업인 행복버스 올 첫 운영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는 8일 장성군 삼서농협 대회의실에서 삼서면 관내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첫 행복버스 사업을 실시했다. 이날부터 시작한 행복버스는 의료지원·장수사진·검안안경·예술공연·법률상담 등 다양한 문화·복지서비스를 농업인들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남농협 제공

건축사 자격시험 내년부터 연 2회로 확대

장애인 응시자는 도면작도 시험시간 1.2~1.5배로 늘려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 횟수를 연간 두차례로 늘린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마다 9월 한 차례만 건축사 자격시험이 치러져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컸다.

현행 제도에서는 건축사 자격을 따려면 3과목의 실기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과목별 합격제'라 일단 합격한 과목의 경우 이후 다른 과목 합격을 위해 응시하는 5회 시험까지 합격 성적이 인정된다.

1년에 1회 응시이기 때문에 합격 과목의 유효 기간이 최장 5년인 셈인데, 수험생들이 부담을 느껴 건축사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경우 휴직까지 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일이 많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제 연간 응시 기회가 두 차례로 늘고 조만간 시행령 개정과 함께 '합격 과목 5회 유효' 규정이 '합격 과목 5년 유효'로 바뀌면, 사실상 수험생은 합격 과목에 대해 최대 10회나 인정받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집중할 수 있

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장애인 응시자를 배려해 장애 유형·등급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 시간도 1.2~1.5배로 늘린다.

과목별 3시간씩 모두 9시간 동안 도면을 작도하는 현행 기준에 맞춰 장애인 응시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연 2회로 응시 기회가 늘면 응시자들은 보다 여유 있게 시험에 대응하고, 건축사 사무소도 인력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보, 11월까지 '온라인 채용박람회'

400개사 500여명 채용

신용보증기금은 채용 포털사이트 잡코리아에 전용 채용관을 개설해 '2019년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11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에 신보가 선정한 '좋은 일자리 기업', '수출스타 기업', '퍼스트뱅크 기업' 등 우수 중소기업 400개사가 참가해 500여명을 채용한다.

신보는 우수 중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위해 2013년부터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열고 있다.

신보 관계자는 "온라인 채용박람회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구직자에게 좋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잡매칭 사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고의 차량과 최상의 서비스

28석 무등, 45인승 80여대 보유

〈관광, 예식, 회사 워크숍, 기업체 통근 차량, 예약상담 문의〉

(유)예향고속관광 (전세버스,여행사)
홈페이지 : www.yh-bus.com
전화 : 062-944-5775 팩스 : 062-944-5995

기업 채용예정자 모집

<http://www.honam.or.kr>

현재 모집 과정

매월훈련수당 40만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및 훈련사업에 따라 차등지급)
※ 훈련과정은 규정에 의해 과정명과 개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재직수당

전 기 공 사

(5/7 개강)
[교육내용]
- 동력제어반공사, 동력설비공사
- 배관공사, 전열공사, 조명공사
- 전기이론, 전기기기, 전기설비
[취득 자격증]
- 전기기능사, 송강기능사
- 전기산업기사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

직업상담사

(과정평가형) (5/16 개강)
- 어려운 필기, 실기 시험 없이 훈련과정 수료 후 자체 평가를 통해 자격 취득
- 직업상담사 실무능력까지 훈련가능
* 자격증 취득 후 진로
-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전문상담사
- 고등학교, 대학교 진로 상담 및 취업지원관
- 전국 281개 시, 군, 구 소재 공공 직업안정기관
- 2,100개의 민간 유료 직업소개소
- 24개의 국외 유료 직업소개소 등

태양광발전설비

(5/20 개강)
[교육내용]
- 시스템운영 및 유지, 안전관리
- 발전장치 전기시설 및 토목공사
- 태양광발전연계장치, 전기CAD
[취득 자격증]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냉 동 공 조

[교육내용]
- 냉동공학, 공기조화, 냉동기계
- 자동제어설비, 냉동설치시공
- 가스용접, 보일러취급, 보일러시공
[취득 자격증]
- 냉동공조기계기능사
- 가스기능사
- 에너지기능사 (6/3 개강)

자동차(전기전자)정비

[교육내용]
- 엔진점화장치정비유지보수
- 하이브리드전기장치정비
- LPG/LPI전자제어장치정비
[취득 자격증]
- 자동차정비기능사 (6/3 개강)
- 자동차 차체수리 기능사
- 건설기계정비 기능사

광주공동훈련센터
(재)호남직업전문학교 상담문의 605-8000